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I was told that we would have a company dinner today

학습 목표 회식 일정 공지하기, 새 직원 소개하기

To announce a company dinner, To introduce new employees

문 법 -자고 하다, -(으)라고 하다

어 회식 Company dinners, 직장에서의 모임 Meetings at work

정보·문화 한국의 회식 문화 The company dinner culture of Korea

대화 1



공장장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Hello, everybody. I believe you all remember that we are planning to go out to dinner this Friday night. We should all go together with no absences!

모니카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Please tell me that we are not having 삼겹살 (pork belly) today.

공장장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I assumed that everyone liked it, so decided we should to go to a pork belly barbeque again. You don't care for it?

모니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2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Oh, it's not that. What about going to a chicken joint for the second round? It will be great to have cold beer and fried chicken as the weather is so warm.

공장장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 봅시다.

Of course, that sounds like a plan. Then, the first round will be pork belly barbecue, and we will have fried chicken and beer (chi-maek) for the second round. Let's get stuffed.

모니카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Great. I will eat my fill.



기억하다 to remember 지맥 Chi-maek (acronym for chicken and maekju (beer in Korean)) 배 터지게 먹다 to get stuffed with food 포식하다 to eat one's fill

어휘 1

호식 Company dinners



회식을 하다 to go out to dinner with coworkers



참석하다 to attend



빠지다 to excuse oneself from



한턱내다 to treat



한잔하다 to have a drink



2차에 가다 to go in for a second round



술을 받다 to be offered alcohol



건배하다 to toast

문법 1

-자고 하다

동사에 붙어 청유문을 옮겨 말할 때 사용한다.

1) 가: 지훈 씨가 뭐라고 해요? 나: 오늘 한잔하자고 해요.

2) 가: 2차는 어디로 갈까요?

나: 1차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데요.

3) 가: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어요? 나: 투안 씨가 삼겹살 먹자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4) 가: 단합 대회는 왜 하는 거예요?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예요. -자고 하다 attached to a verb, is used to indirectly report what is suggested.

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1 그림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그림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그림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대화 2



공장장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Hello,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new member to you. This is Tata. He will work with us starting from next month.

- 타 타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 주세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Tata Ismono. Please call me Tata.
- 지 훈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 대회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Welcome, Tata. As we have a new member and the weather has been so nice lately, what do you think of having a get-together, manager?
- 공장장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Oh, that sounds like a plan. What do you think, everyone?
- 모 두 <mark>좋습니다.</mark> I second that.
- 공장장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번 뭉칩시다. Then, let's all go sometime next week after work.

▼ Tip -아/어 달라고 하다, -아/어 주라고 하다

동사 '주다'는 목적어를 받는 대상에 따라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달라진다. 목적어를 받는 대상이 화자 (speaker) 자신인 경우 '-아/어 달라고 하다', 목적어를 받는 대상이 제3자인 경우 '-아/어 주라고 하다'를 사용한다. In indirect speech, the '주다' verb changes depending on the recipient of the given action. -아/어 달라고 하다's used when the speaker of the quoted phrase is the recipient who is given an action. On the other hand, -아/어 주라고 하다 is used when a third person is the recipient who is given an action.

- 1) 영수: 점심 좀 사주세요.
 - 민수: 뭐라고 했어요?
 - 영수: 점심 좀 사 달라고 했어요.
- 2) 수지: 사장님이 이거 민수 씨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셨어요. 민수: 네. 고마워요.

어휘 2

직장에서의 모임 Meetings at work





환영하다 to welcome



환송하다 to farewell



축하하다 to celebrate



친해지다 to become intimate



단합 대회 employee pep rally



등반 대회 hiking event



야유회 picnic/ excursion



체육대회 athletic meet event

문법 2

-(으)라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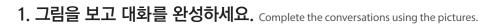


동사에 붙어 명령문을 옮겨 말할 때 사용한다.

- 1) 가: 공장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식에 참석하라고 하세요.
- 2) 가: 고향에 전화했어요? 나: 네, 모두 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네요.
- 3) 가: 사장님께서 아직 안 오셨네요. 나: 네,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먹으라고 하세요.
- 4) 가: 어렵지 않았어요? 나: 조금 어려워서 한국인 친구한테 도와 달라고 했어요.

-(으)라고 하다 attached to a verb, is used to indirectly report what is requested. It is the indirect speech pattern for imperatives.

연습 2



1)	7.0

가: 리한 씨, 승진 _____. 나: 네, 감사합니다.

2)

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나: 네, 새로 온 리한 씨를 _____ 자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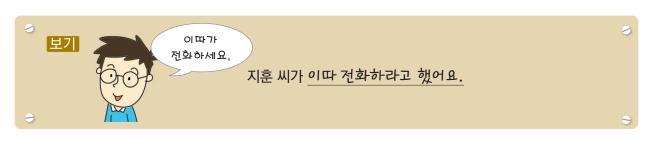


가: 어제 단합 대회 재미있었어요?

나: 네, 회사 사람들하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______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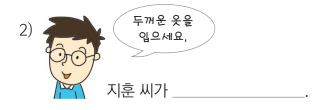
2.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complete, create sentences using '-(으)라고 하다.'



1) 먼저 가세요, 지훈 씨가







활동

회식을 알리는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is is the announcement concerning the company dinner.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한국 상사 회식 안내〉

김민수 씨 승진 축하 겸 단합대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장소: 한국 식당

시간: 3월 25일 (목) 오후 6시

전화번호: 02-400-5000

1. 동료에게 회식을 안내하는 문자를 고르세요.

10:25 OnLine UD 전 민수 씨, 이따 한 잔 하지 않을래요? 6시 에 한국 식당 앞에서 만나요.

2 10:25 OnLine 민수 씨, 저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못 가요. 수루 씨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3)
10:25 OnLine UIIII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 6시에 만나요. 꼭 참석하세요.

(4)
10:25 OnLine UUI
민수 씨, 승진 축하해요.
언제 술 한잔해요. 승진
턱 내세요.

한국의 회식 문화 The company dinner culture of Korea



호식 The company dinner

한국의 회식문화는 단순히 동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A company dinner in Korea is more than entertaining oneself with his/her colleagues over food and drink, as it is considered a part of business and work.

회식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로, 회사 조직원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unique part of the business culture in Korea. It is acknowledged as a way to raise a team spirit and create positive and intimate relations among colleagues.



술자리 예절 Drinking Manners in Korea

회식에 가면 보통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도 마련됩니다. 마시는 술의 종류는 보통소주, 맥주 혹은 한국 고유의 술인 막걸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를미리 사람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잔에 받았을경우, 그냥 내려놓지 말고 가볍게 입에 댄 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Going out to dinner with colleagues usually includes food and drink, and typical alchoholic beverages are soju, beer, or Makgeolli, a wheat-and-rice-based alcohol native to Korea. If one doesn't drink for a religious reason, it is advised that one inform others and excuse himself/herself from drinking beforehand. In the case one doesn't wish to drink and is offered a drink, it is recommended that s/he slightly touch the glass to one's lips and put the glass down.

술을 받거나 따를 때 다음과 같이 하세요.

Do the following when pouring or receiving drinks

상사에게 술을 따를 때

When pouring drinks to one's superiors



두 손으로 따릅니다.

One should use both hands.

상사에게서 술을 받을 때

When pouring drinks from one's superiors



두 손으로 받습니다.

One should receive with both hands.

상사 앞에서 술을 마실 때

When drinking with one's superiors



고개를 상사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One should turn away.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뭐 해요?

- 1
- 2
- 3
- 4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1)
- (2)
- 3
- 4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 3. ① 아니요, 모두 참석하라고 했어요.
 - ③ 아니요, 이제 2차에 간다고 했어요.
- 4. ① 네, 그래서 오늘 환송회를 할 거예요.
 - ③ 네, 그래서 오늘 환영 파티를 할 거예요.
- ② 네, 회식을 할 거라고 했어요.
- ④ 네, 민수 씨가 한턱낸다고 했어요.
- ② 네,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를 해요.
- ④ 네,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를 해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



2



(3)



4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 ① 회식입니다.
- ② 등산입니다.
- ③ 소풍입니다.
- ④ 체육대회입니다.

2.



- ① 환영하는 자리예요.
- ② 환송하는 자리예요.
- ③ 축하하는 자리예요.
- ④ 친해지는 자리예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 회식을 한다고 해요?	
	나 네 하 사라드 빠지어이	해이

- ① 빠지라고
- ② 마시라고
- ③ 참석하라고
- ④ 축하하라고

4. 가: 리한 씨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나: 그래요? 그럼 곧	파티를	해야겠네요
		11 1 700 11-

- ① 생일
- ② 승진
- ③ 환송
- ④ 환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보통 회식이라고 하면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술자리 대신 같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술이 없는 회식 문화가 더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② 보통 회식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 ③ 회식에서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 ④ 회식에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